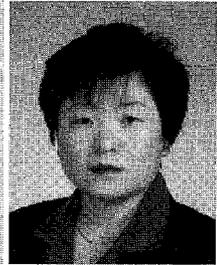


# 한노협과 민통련, 그리고 신길동 101호



현 서울시의원 정선순

1956년생, 원풍노조조합장,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위원장, 민통련 총무국장  
(21)는 새한정운동모임 대표

민통련 창립 20주년을 맞아 글을 쓰려고 하니  
20여년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친다.  
두 단체에서 동시에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노협과 민통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협 사무실이자 민통련의 별도 회의실(?) 역할을 했던  
신길동 101호 이야기를 남기고자 한다.

## 한노협 창립 이야기

80년 5.17 이후 전두환 독재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었던 민주노동운동 세력은 83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이 창립된 이후 노동운동 조직의 건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을 거친 다음 84년 3월에,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약칭 한노협)란 이름으로 조직을 건설하게 되었다.

당시 한노협에는 원풍, 청계피복, 동일방직, YH, 콘트롤데이터, 반도, 동남노조 등등 70년대 민주노조운동에 참여했다가 탄압에 의해 해고되었던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대다수가 민주노조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활동가들인 관계로 노협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블랙리스트 철폐운동이었다. 70년대, 80년대 초 노동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현장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를 철폐하지 못하면 노동운동의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으로 노협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조합활동의 지원, 지도를 통해 민주노조가 뿌리내리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84년 가을 무렵, 노동, 농민, 청년 등 민주화운동 제단체들 간의 연대문제가 논의되어 당시 민청련의 김근태 의장, 노협의 방용석 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민중민주운동협의회(약칭 민민협)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민민협에서 상근하며 실무를 맡게 되었다. 그런데 84년 하반기부터 85년 초에 걸쳐 다시 민민협은 별도로 만들어진 민주통일국민회의와 통합 논의를 벌였고, 85년 3월에 이 두 단체가 통합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이 되었다. 나는 이 단체에서 다시 상근 활동가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민통련에서의 근무가 끝나면 퇴근 후에는 한노협 사무실에 가서 노협 일을 보아야 하니 동시에 두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85년에 접어들면서 당시 노동운동 내부에서는 운동노선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노협에서 함께 활동했던 일부 인사들은 현장 노동조합운동 지원위주의 운동방식에 대해 조합주의, 개량주의, 경제주의 등의 용어를 쓰면서 비판하며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전개되었던 논쟁들이 이후 형태를 달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정치운동 등의 영역으로 확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무용론까지 대두되었고, 70년대 이후 열정을 가지고 민주노동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고 매도당하고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운동단체들을 포괄한 연대운동체인 민통련에서도 이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결국 정치투쟁을 중시하던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이 별도로 가입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서노련은 민통련에 가입은 했지만 이후 개헌싸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적인 활동에 치중했고 연대운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노협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87년 6월 항쟁의 승리의 기쁨, 뒤 이어진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감격 그리고 대선에서의 좌절과 아픔까지 민통련과 함께 했다.

## 신길동 101호 연립 이야기

80년대 초, 원풍노동조합은 대표적인 민주노조이면서 80년 광주항쟁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모금 등의 활동을 벌이다 군부독재의 미움을 사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이에 맞서 싸우던 중 조합원 중심으로 돈을 모금하여 신길동에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신길동 연립(101호)이 84년에 창립된 한노협(한노협)의 산실이 되었고, 이후 한노협 사무실로 사용되었으며 곧바로 당시 운동단체들의 사랑방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이 곳의 구조는 방이 3칸, 거실과 주방이 있는 전형적인 서민아파트 규모였는데,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퇴근 후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식사도 하고 편하게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안성맞춤이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나 가톨릭과 같이 교회 성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주택과 같은 공간을 가지고 있던 운동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라 운동단체들의 밤샘회의나 MT 등의 장소로 많이 이용되게 되었다. 84년도에는 가장 먼저 창립된 청년단체인 민청련 식구들이 많이 활용했고 85년 이후에는 민통련 식구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노협이 민통련의 가맹단체이기도 했고 이창복 선생 등 민통련 선배들이 한노협의 지도위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한식구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어쨌든 민통련의 중요한 결정을 위한 회의가 있거나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행사가 있거나 할 경우 어김없이 최종 귀착지는 신길동 101호였으며, 거기서 식사와 술도 나누고 미진한 이야기도 하면서 밤을 지새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민주헌법쟁취서명운동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도부들이 이곳에서 합숙하며 글을 다듬던 모습이다. 민통련의 지도부 어르신들부터 실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신길동 101호에서 하룻밤이라도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통련의 한축을 이루었던 지역운동협의회(지운협) 식구들은 서울에 올라와 그날 바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대체로 신길동 101호에서 쉬고 가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 자신이 민통련의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국 상근 실무자이기도 하고 한노협의 살림도 책임을 맡은 처지라 민통련 식구들에게는 특별히 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

5·3 인천사태 이후 민통련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배자가 있었는데 이들 중 신길동 101호에 묵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도 이곳에서 연행되거나 한 적은 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한 대목이다.

## 힘든 시절, 즐거운 기억들

민통련 시절, 나는 조직의 살림살이를 담당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들 활동비 챙기랴, 밀린 인쇄비 등 외상값 갚으랴 항상 쪼들리던 나날이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장이라도 더 유인물을 만들고 사람을 조직하랴, 거리에서 싸우랴 힘든 상황이라 어려운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고, 집회도 수없이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수배되고 그 당시 민통련 동지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렇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지금도 그 시절 식구들을 만나면 가장 마음이 편하고 정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 만나 함께 일했던 동지들과의 나날이 이제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힘을 주는 즐거운 추억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함께 활동했던 선후배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서로를 끌어 주고 밀어 주며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